

신심 행위는 가치의 위계와 이 두 가지 예배 표현의 고유한 본질에 맞게 공존하여야 한다.<sup>90)</sup>

74. 이러한 원칙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신심 행위들과 전례의 주기와 요구들을 조화시킴으로써 “이 두 가지 형태의 신심을 혼합”<sup>91)</sup>시키지 않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전례와 신심 행위가 혼합되거나 혼동된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교회의 정신과는 다르게 신심 행위가 사라짐으로써 신자들에게 채워지지 않은 공백을 남겨 큰 해를 입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sup>92)</sup>

### 신심 행위의 쇄신을 위한 일반 원칙들

75. 사도좌는 신심 행위의 쇄신을 이룰 수 있는 신학적 사목적 역사적 문학적 원칙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왔다.<sup>93)</sup> 사도좌는 또한 이러한 원칙들이 성서와 전례 정신뿐 아니라 교회 일치와 정신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설명해 왔다. 성좌가 세운 기준은 역사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신심 행위의 본질적 핵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현대의 영성을 반영한다. 신심 행위는 또한 건전한 인간학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대중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 요소들을 간직하면서도 대중 신심을 받아들이는 각 민족의 문화와 표현 방식을 존중하여야 한다.

90. 「마리아 공경」, 31, 48항 참조.

91. 이탈리아 주교회의 전례주교위원회, 사목 공지 *Il Rinnovamento Liturgico in Italia*, 1983. 9. 23., 18항, in *Enchiridion CEI*, 3, Bologna: Edizioni Dehoniane, 1986, 886면.

92. 「마리아 공경」, 31항; 「푸에블라 문헌」, 915 참조.

93. 교황청 주교성, *Directorium de Pastoralis Ministerio Episcoporum*, 91항; 「마리아 공경」, 24-38항 참조.

## 제3장 대중 신심의 진단과 쇄신을 위한 신학적 원칙들

### 예배 생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맺는 친교

76. 역사나 계시에서 인간의 구원은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에서 흘러나와 더 없는 자유 안에서 완전히 무상으로 주어지는,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계시된다. 구원의 계획이 계시되고 실현되게 하는 모든 복잡한 사건과 말은<sup>94)</sup> 하느님과 인간이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형태를 띤다. 하느님께서 주도하시고, 인간은 신앙 안에서 귀 기울이며 “믿고 복종하는”(로마 16, 26) 자세가 요구된다.

하느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은(출애 19—24장 참조) 이러한 구원의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하느님의 선민을 그분의 ‘소유’이며,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나라, 거룩한 백성”(출애 19, 6)이 되게 한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계약에 충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하느님을 본받고(레위 11, 44-45; 19, 2 참조)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영감과 힘을 얻는다.

이스라엘의 예배와 기도는 하느님의 위업(mirabilia Dei)이나

9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 2항 참조.

역사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의 개입을 기념함으로써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된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사건들은 신앙에 대한 성찰과 기도 생활을 위한 변함 없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77.**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시기로 하셨다”(히브 1, 1-2). 그리스도의 신비,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는 하느님의 구원의 약속을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보여 주고 실현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외아들”(요한 3, 18)이시므로, 하느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로마 8, 32; 요한 3, 16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격과 활동은 하느님 백성의 신앙과 기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증거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스승이시며(마태 22, 16 참조), 진실한 증인이시고(묵시 1, 5 참조), 대사제이시며(히브 4, 14 참조),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고(1베드 2, 25 참조), 유일하고 완전한 중개자이시다(1티모 2, 5; 히브 8, 6; 9, 15; 12, 24 참조).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며(요한 14, 6 참조), 교회의 찬미와 탄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다다르며, 하느님의 모든 은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진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며(골로 2, 12; 로마 6, 4 참조),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살며(로마 8, 9 참조),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도록 부름 받는다(에페 4, 13 참조).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의 모범으로 삼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순간 순간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셨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변함 없는 ‘순종(fiat)’으로 이루어졌

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요한 4, 34)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녀다운 신심을 가지고 하느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시는 완전한 모범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삶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는 하느님과 활발하고 친밀하며 신뢰에 찬 친교를 끊임없이 추구하시는 모범이시다.

**78.** 하느님 아버지와 나누는 친교의 삶 안에서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로마 8, 14 참조). 신자들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변화된다. 신자들은 성령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양자의 영’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자세와(로마 8, 15-17 참조) 그분의 마음을(필립 2, 5 참조) 넓게 된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우쳐 주심으로써(요한 14, 26; 16, 13-25 참조), 그들이 삶의 사건들을 그 가르침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깊은 경륜을 알게 하시고(1고린 2, 10 참조),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마 12, 1)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거부와 시련에 직면하여야 하는 그들을 도와주신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풍부하게 하시며 인도하신다.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리고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신다”(로마 8, 26-27).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출발하며, 성령께 힘을 얻어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령 없이는 진정한 전례 예식도, 대중 신심의 참다운 표현도 있을 수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79.** 앞서 말한 원칙들에 비추어 볼 때, 대중 신심은 언제나 하느님과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혼동하는 등 어느 정도 결합은 있지만, 대중 신심은 삼위일체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대중 신심은 실제로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며 하느님의 선하심과 권능, 지혜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대중 신심은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대중 신심은 아버지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관심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하고, 하느님께서는 착한 사람들을 칭찬하시며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고집스럽게 증오와 폭력, 불의와 기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치신다는 것을 선포한다.

대중 신심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위격에 쉽게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대중 신심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며,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의 참 형제로서 보여 주신 무한한 사랑을 직관한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아 나서시는 착한 목자이시며,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시는 기적의 행위자이시며, 진리를 선포하는 교사이신 그리스도의 공생활의 여러 장면들이 대중 신심을 통해 표현된다. 무엇보다도 대중 신심은 그리스도의 수난의 신비를 관상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신비를 통하여 대중 신심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분의 한없는 연대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배반과 버림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으며 가시관을 쓰셨고 두 강

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묻히셨고 친구들과 제자들의 애도를 받으셨다.

대중 신심은 또한 하느님의 신비 안에서 성령의 위격을 의식적으로 깨닫는다. 대중 신심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으며”,<sup>95)</sup> 교회 초기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풍성히 내리셨음을 선포한다(사도 2, 1-13 참조). 대중 신심은 특히 하느님의 성령 — 견진성사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날인을 받는다. — 의 힘이 교회의 모든 성사 안에 현존한다는 것을 의식한다. 또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찬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든 기도와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 하느님께서 강복하시기를 청하는 간구가 성삼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식한다.

**80.**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은 대중 신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이 강조해야 할 요소이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자의 증개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리스도교 기도의 특성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 대중 신심에서 사용되는 양식은 성령의 위격과 활동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와 성령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음악과 몸짓의 역할은 무시하지 않지만 하느님의 영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성령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지 않는 관습 때문에 대중 신심의 기도문과 양식에 성령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

95. DS 150; 『로마 미사 전례서』, 미사 통상문,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은 교도권이 이미 여러 차례 권고해 왔던 대로 대중 신심의 복음화로 극복할 수 있다.

● 대중 신심은 또한 그리스도 부활의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대중 신심에서 흔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한 애정 어린 신심이 또한 완전해지려면 그리스도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의 맥락 안에 놓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의 풀 수 없는 유대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의 하느님”(마태 22:32)이신 분, 곧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영원히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와(2고린 13:4 참조)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sup>96)</sup> 성령을 기념함으로써,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교의 참다운 얼굴을 볼 수 있다.

● 끝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한 신심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그리스도의 몸을(1고린 11:24 참조) 먹고,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성찬례에 온전히 의식적으로 참여하도록 신자들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성찬례 참여는 전례 주년의 정점인 파스카의 성삼일을 거행할 때와, 주일마다 거룩한 신비를 거행할 때 최고의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맞는다.

## 교회: 예배 공동체

### 8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인”<sup>97)</sup>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교회는 주님이시며 창립자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예배 행위를 바친다.<sup>98)</sup> 이 모든 예배 행위는 서로 다른 방식과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는 것이며, 흠어진 자녀들을 일치된 하나의 민족으로 모으시려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회는 예식 행위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거룩한 표지들을 통하여 그분의 구원 활동을 실현한다. 교회는 성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된 수난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한다. 교회는 다른 성사들을 거행함으로써 구세주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총을 받는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당신 성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현양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시편과 성가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구원 신비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기를 간청한다. 교회는 다양한 시기와 다양한 상황에서 신자들을 돕고자 세워진 준성사들을 통하여, 부활의 성령께서 신자들의 활동을 이끌고 밝혀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82. 그러나 전례의 거행이 교회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의 전부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드리며(마태 6:6 참조),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심을 그리스도 신비의 특별한 측면으로 이끌어준 위대한 신앙 체험가들이 만든 형식에 따라 모여 기도드린다. 신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집단 의식에서 자발적이고 실제적으로 생겨난 구조에 따라 기도드린다. 이를 통하여 대중 문화의 요구는 복음 메시지의 본질적 내용을 조화롭게 전달한다.

96. DS 150; 『로마 미사 전례서』, 미사 통상문,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97. 성 치프리아노, 「주님의 기도 해설」(De Oratione Dominica), 23.

『라틴 교회 저술가 전집』(CSEL) 3/1, Vindobonae, 1868년, 285면.

98. 전례 헌장, 5-7항 참조.

83. 대중 신심의 참된 형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며, 언제나 교회 신심의 표현으로 여겨져야 한다. 교회와 친교를 이루고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이며 교회의 예배 규율을 따르는 신자들이 그러한 대중 신심의 형태들을 이용한다. 실제로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 신심을 승인하고 권장해 왔다.<sup>99)</sup>

84. 대중 신심은 교회 신심의 한 표현으로서 그리스도교 예배의 일반 규율과, 대중 신심을 식별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맡은 교회의 사목 권위에 종속된다. 교회는 계시된 말씀과 전통, 거룩한 전례와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대중 신심을 새롭게 한다.

다른 한편, 대중 신심의 표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교 예배의 ‘교회론적인 원칙’에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 대중 신심은 개별 교회와 보편 교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대중 신심이 지역적 문제나 눈앞의 문제들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보편적인 가치들과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다.

-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천사들과 성인들에 대한 공경과 죽은 이들을 위한 대리 기도는 천상 교회와 순례자인 지상 교회가 맺는 관계의 광범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교역과 은사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 교역은 하느님 예배에 필요한 것인 반면, 은사는 대중 신심의 표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99. 전례 현장, 13항; 교회 현장, 67항 참조.

## 보편 사제직과 대중 신심

85.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입교 성사들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며,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리도록(요한 4, 23 참조) 부름 받은 예언자요 사제요 왕다운 백성이 된다. 교회는 거룩한 전례, 특히 성찬례의 거행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중 신심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교 생활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임무를 수행한다. 성령께서는 하느님께 찬미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기도와 간청을 드리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마 12, 1; 히브 12, 28)이 되게 하신다.

86. 대중 신심은 이러한 사제직을 바탕으로 신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며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사도 2, 42-47 참조)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싸여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도록 도와준다. 대중 신심은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의(1베드 3, 15 참조) 이유를 설명해 주고, 특수한 예배 상황의 중요한 측면들을 보존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교회의 신비체 안에서 생겨나 발전하는 교회의 가치들을 표현한다.

## 하느님 말씀과 대중 신심

87. 성서가 전달하고, 교회의 교도권이 보존하고 계시하며, 거룩한 전례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은 신자들의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성령의 도구이다.

교회는 하느님 말씀의 경청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이를 통하여 성장하므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서와 친숙해져야 하고, 그

정신에 젖어듬으로써<sup>100</sup> 대중 신심의 의미를 신앙의 내용에 합당하고 일치하는 말로 옮기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신심 의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성서는 대중 신심뿐 아니라 비할 데 없이 훌륭한 기도 양식들과 주제들에 영감을 주는 무한한 원천이 된다. 성서를 끊임없이 참조하는 것은 또한 흔히 대중 종교의 영향을 받아 모호하거나 더 나아가 그릇된 신심 표현들을 만들어 내는 지나친 신심 형태들을 억제하는 수단과 기준이 된다.

88. “성서를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sup>101</sup>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대중 신심은 일반적으로 적절히 선택하여 알맞은 해석을 결정한 성서 본문을 포함하도록 크게 권장된다.

89. 이와 관련하여, 전례 거행에서 사용되는 양식들이 가장 유용할 수 있다. 그러한 양식들은 언제나 여러 유형의 전례 거행을 위해 다양하게 고른 성서 본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 신심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미 구조나 표현에서 정당한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다양한 성서 인용문들을 배치할 때 거룩한 전례 예식에서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똑같은 구조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어쨌든, 전례 양식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우선적인 관심사로 하는 대중 신심이 올바른 가치 척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전례 양식은 대중 신심이 구약 성서와 신약성서의 조화를 깨닫고 서로에 비추어 서로를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수세기에 걸친 오랜 경험에서 볼 때, 전례 양식은 또한 성서 메시지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훌륭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도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유효한 기준이 된다.

성서 본문을 선택할 때에는 언제나 짧은 것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쉽게 암기할 수 있고 정곡을 찌르며, 실천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길이나 묵주기도와 같은 대중 신심의 일부 형식들은 성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성서는 외워서 하는 특별한 기도나 몸짓들과 쉽게 관련지을 수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기억하기 쉬운 성서 구절들이 그러하다.

## 대중 신심과 사적 계시

90. 대중 신심은 흔히 사적 계시와 관련이 있는 비범한 일이나 사건들에 언제나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성모 신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현’이나 ‘메시지’와 각별히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적 계시에 대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언급을 상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른바 ‘사적’ 계시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교회 권위의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유산에 속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결정적 계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의 한 시대에 계시에 따른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교도권의 인도에 따라, 신자들은 신앙 감각(sensus fidelium)으로 이러한 계시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나 성인들께서 교회에 하신 진정한 호소를 식별하고 받아들이게 된다”(67항).<sup>102</sup>

100. 계시 현장, 25항 참조.

101. 위와 같음.

102.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요제프 라칭거의 신학적 해설을 보라. : 교황청 신앙교리성, 「파티마의 메시지」(*Il Messaggio di Fatima*), Citta del Vaticana: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0, 32-44면.

## 토착화와 대중 신심

91. 대중 신심은 자연히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대중 신심의 표현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대중 신심의 여러 형태들은 수세기에 걸쳐 많은 개별 교회에서 생겨나 받아들여져 왔으며, 신앙이 개별 민족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왔고 신자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확실한 표지이다. 실제로 “대중 신심은 신앙 ‘토착화’의 가장 우선적이고 근원적인 형태이다. 대중 신심은 언제나 전례에서 갈 길을 찾고 방향을 잡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 신앙을 풍부하게 하기도 한다.”<sup>103</sup> 복음 메시지의 혁신적인 역동성과 각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은 대중 신심 안에서 서로 만난다.<sup>104</sup>

92. 개별 신심 행위를 적응시키거나 토착화할 때 언어나 음악적 예술적 표현 영역에서나 어떤 몸짓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신심 행위가 성사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들에 집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경우에 그러한 행위들이 가톨릭 신앙의 틀 안에

103. 「파티마의 메시지」, 35면.

104. 교황청 문화평의회, 「문화에 대한 사목적 접근」(*Per una Pastorale della Cultura*), 1999.5.23., 28항 참조: “대중 신심은 신앙의 진정한 토착화를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예 가운데 하나이다. 왜냐하면 대중 신심은 신앙과 전례, 감정과 예술을 조화롭게 융합한 것이며 지역 전통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나 지금도 온갖 인종이 뒤섞여 있는 아메리카는, 혼혈인의 얼굴을 한 테페악의 동정녀와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완전히 토착화된 복음화의 훌륭한 본보기로 인식하고 있다’(『아메리카 교회』, 11항). …… 대중 신심은 한 민족이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하느님과 그분의 섭리, 성모님과 성인들, 이웃, 죽은 이들, 피조물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또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한다.”

서 대중에게 그 뿌리를 두고 대중에게서 직접 나오며, 대중의 언어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심 행위와 신심 실천이 대중의 정서를 표현한다고 해서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관점으로 그러한 것들에 다가서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각국 주교회의는 수도회와 관련된 신심 실천 문제가 있을 때, 교구장이나 수도회 상급 장상의 고유한 권한을 마땅히 존중하면서, 특정 국가나 광범위한 지역에 널리 보급된 신심 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제설혼합주의로 혼탁해진 예배 형식들이 다양한 언어 표현을 통하여 신심 행위에 섞여들지 않게 하려면 큰 경계심과 깊은 분별력이 필요하다.

특히 적응이나 토착화의 과정을 겪는 이들 신심 행위가 그 정체성과 본질적인 특징을 잃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심 행위의 역사적 기원과 그것을 구성하는 교리와 예배 요소에 언제나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례의 토착화 과정에서 대중 신심의 일부 요소를 받아들이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경신성사성에서 이 주제에 관하여 이미 발표한 관련 훈령을 참조하기를 바란다.<sup>105</sup>

105. 교황청 경신성사성, *Varietates Legitimae*, 45항 참조.